

44번째, 농기구이야기

고르는 연장 ‘부뚜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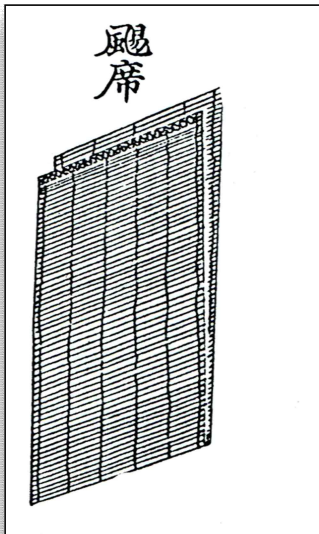


○ 편집 및 발행 :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○ 발행일 : 2011.11.1
○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,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.

1. 부뚜의 개념과 역사

부뚜는 타작마당에서 곡식에 섞인 티끌이나 쪽정이, 검부러기 따위를 날려 없애려고 바람을 일으키는 데 쓰는 돛자리이다. 부뚜는 18세기에 ‘분도’의 형태로 처음 나타난다. <<우리말 어원사전>>에서는 부뚜의 어원을 ‘붓[扇]- +돛[席]’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. ‘분도’는 같은 시기에 ‘붓도’, ‘붓돛’의 형태로도 나타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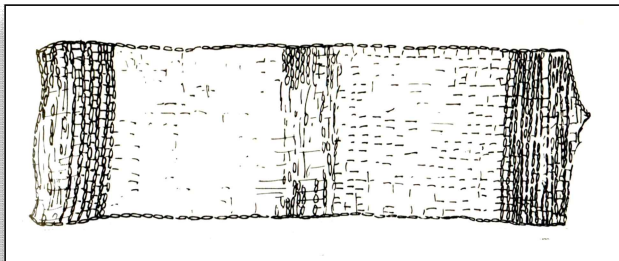
17~18세기에 편찬된 『역어류해(譯語類解)』나 18세기 후기 편찬된 『해동농서(海東農書)』에서는 ‘붓돛’, 북학의(北學議)에서는 ‘부뚜’, 사류박해(事類博解)에는 ‘부투’라고 하였으며 한문으로는 양석(颺席), 풍석(風席), 양각자(揚穀子)라고 부른다. 지방에 따라 ‘부뚝’, ‘북뚝’, ‘풍석’ 이라고도 한다.



<해동농서, 양석(颺席)>

2. 부뚜의 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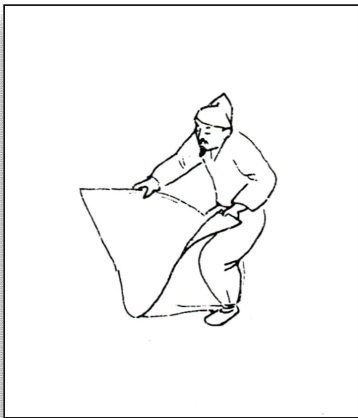
부뚜는 왕골이나 가는 새끼로 만든다. 너비 50cm, 길이 250cm 정도의 자리로, 손으로 쥐기에 편리하도록 ‘부뚜손’이라는 둥근 막대가 붙어 있다.



<부뚜형태> ©조선의 재래농구

3. 부뚜의 용도

부뚜의 사용방법은 『농사직설(農事直說)』에도 “긴 자리의 가운데를 밟고 양끝을 들어올린다.”라고 쓰여 있듯이, 밟고 가운데를 밟고 양끝을 손으로 쥐고 흔들어 바람을 낸다. 이것을 부뚜질이라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이 곡식을 높이 들고 조금씩 쏟아내리면서 곡식에 섞여 있는 검부러기나 쪽정이 등을 바람으로 날린다.



<부뚜질> ©민족생활어사전

기산풍속화에는 돛자리를 접어서 가랑이 사이에 끼고 양손으로 자리 끝을 한 자락씩 잡고 손뼉치듯 자리를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는 또 다른 형태의 부뚜질을 볼 수 있다. 센 바람을 일으키는 데는 드림부채를 사용하고, 약한 바람을 내도 되는 경우에는 부뚜를 사용한다.



<타작하여 노누는 모양, 기산풍속화>

【참고문헌】

국립국어원.

김광언, 『한국의 농기구』, 문화재관리국, 1969.

한국농업기계학회, 『한국농기구조감』, 2001.

한국무속박물관 「조선의 재래농구」, 1995